

지난해 기아차 광주공장 생산 소폭감소



스포티지와 쏘울을 혼류 생산 중인 기아차 광주 2공장 생산라인

지난해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생산량이 전년(2016년) 대비 소폭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생산량 감소는 주요 수출시장인 북미 등 해외시장 경기침체와 업체간 경쟁심화에 따른 판매 감소, 통상임금 선고 영향 등으로 산업중단과 특근 최소화가 원인으로 분석되

고 있다. 3월 기아차 광주공장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총생산량은 49만2233대(내수 11만5496대·수출 37만6737)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 49만8680대(내수 11만3960대·수출 38만4720)와 비교해 1.3%(6447대) 줄어들었다.

2017년 생산량 전년 비 1.3%(6447대) 줄어 해외시장 경기침체 판매감소·산업중단 원인

생산량은 내수는 1.3% 늘어난 반면 수출은 2.1% 감소했다. 차종별 생산량은 '쏘울'이 16만 5508대(내수 2995대·수출 16만 2513대)로 전년 동기 대비 3.9% 감소했다. 스포티지는 20만1003대(내수 4만4003대·수출 15만7000)로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다. 봉고트럭은 9만7387대(내수 6만 2642·수출 3만4745)로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했다. 올 뉴 카렌스는 2만4652대(내수 2965대·수출 2만1687)로 전년 동기 대비 5.6% 감소했다. 대형버스 그랜버드와 군수차량 등 기타 차종은 3586대(내수 2891대·수출695)로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했다.

기아차 광주공장의 지난해 생산 목표량은 49만대로 목표량은 달성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 글로벌 명차 스포티지와 쏘울을 혼류 생산 중인 광주 2공장은 지난 1992년 문을 연 이래 25년 만인 지난해 3월 누적생산량 3억대를 돌파하기도 했다. 기아차 광주공장 관계자는 "올해도 글로벌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등으로 어려운 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올해 판매목표인 287만5000대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광주공장은 생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연숙 기자

지난해 12월 광주·전남 주식 거래↑·거래대금↓

지난해 12월 광주·전남지역 투자자의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의 주식 거래량은 증가한 반면 거래대금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광주·전남지역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주식 거래량은 4억4762만주에서 4억5685만주로 92만3주(2.06%)가 증가했다. 거래대금은 4조5584억원에서 3조 5847억원으로 9737억원(21.36%) 줄어 들었다.

비 거래량은 1.74%, 거래대금은 1.45%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지역 유가증권시장 거래량 상위종목은 금호타이어, 주연테크, 우리들휴브레인 순이고 거래대금 상위종목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금호타이어 순이다. 코스닥시장 거래량 상위종목은 KD건설, SBI인베스트, 우리기술투자 순이고, 거래대금 상위종목은 신리전, 텔콘, 셀트리온 순으로 높았다.

광주·전남지역 투자자의 전국대

추천정 기자

'광주은행의 약속' 2018 캐시백 이벤트 진행

광주은행은 새해를 맞아 광주은행 K카드 개인 신용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2018 캐시백 BIG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고객에게 직접적인 혜택인 캐시백을 제공하는 '100일의 약속'과 '365일의 약속' 두 가지로 진행하며 고객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응모할 수 있다. '100일의 약속'은 이벤트 응모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 응모 전후 100일간의 이용액을 비교해 추가 이익액별로 최대 5만원을 캐시백 해준다.

'365일의 약속'은 2018년 연간 개인 신용카드 이용 금액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캐시백하는 이벤트다. 이벤트 응모는 광주은행 홈페이지, 모바일 웹, 영업점, 고객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은행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는 2018년 무술년 한 해 동안 광주은행 K카드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꾸준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겨울철 해조류 드세요"

3일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는 모델들이 겨울철 면역력에 좋은 해조류를 선보이고 있다. 농협유통 소속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는 오는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해조류를 최대 21% 할인 판매한다



"무이자 할부는 적립 안돼요"

신용카드 사용법 10가지

신용카드를 만들어놓고 할인이나 적립 등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거나 조건 등을 잘 알지 못해 손해를 입는 금융소비자가 적지 않다.

금융감독원이 3일 이러한 소비자들을 위한 '내 카드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 10가지'를 소개했다. 우선 신용카드는 전월에 일정액 이상의 실적이 있어야 혜택이 제공된다.

A씨는 가족과 함께 식당에서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하고 카드 할인 10%(1만원)를 받았다. 그러나 다음달 같은 식당을 이용했을 때는 전월 이용실적 조건에 미달한 것이 이유로 할인을 받지 못했다.

A씨가 카드사에 문의한 결과 지난해에 할인받은 이용금액 10만원은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되었음을 알게 됐다.

통상 전월 이용실적 조건은 혜택 정도에 따라 30만원 이상, 60만원 이상, 90만원 이상 등 단계별로 구성된다. 전월 이용실적은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카드도 할인받은 이용금액 등 이용실적에서 제외되는 항목도 있어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

할인과 적립이 제외되는 일부 결제도 있다. B씨는 해외여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높은 마일리지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를 발급받아 주로 대형마트 등에서 무이자할부를 이용해 생필품을 구매해왔다. 그런데 해외여행을 앞두고 마일리지 확인한 결과 적립된 마일리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카드사는 무이자할부로 결제 시에는 마일리지 적립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처럼 전월 이용실적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할인이나 적립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다. 대화등록금과 국제지방세, 4대 보험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무이자할부 거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이용에 참고해야 한다. 매일 최대로 할인과 적립을 받을 수 있는 한도도 확인해야 한다. 할인을과 별개로 통합 할인 한도 조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유할인은 실제 주유량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경유차를 이용하는 C씨는 1당 100원 할인을 제공하는 카드를 발급받고 50l를 주유해 총 5000원을 할인받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4300원만 할인받게 됐다. 많은 주유할인 카드가 '1당 00원 할인' 같은 방식으로 할인액을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카드사는 고객이 결제한 주유 금액만 알 수 있어 승인금액을 기준으로 나눠 가상의 주유량을 환산한 후 1당 할인액을 적용하는 만큼 차이가 발생한다. 할부구매 시 할인을 제공하는 카드는 할부수수료를 꼭 확인해야 한다. 장기할부를 조건으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카드의 경우 서비스 제공 조건뿐만 아니라 부담하게 되는 할부수수료도 사전에 따져볼 필요가 있다. 연회비가 높은 프리미엄 카드는 상품권과 숙박권 등의 비우체나 무료 항공권 등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런 서비스는 첫 해에 100만원 이상, 이후부터는 전년 1000만원 이상 결제 등 일정 금액 이상의 실적이 있는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만큼 꼼꼼한 확인이 요구된다. 전월 이용실적 조건은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실적 합산에 유리한 가족카드를 활용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가족카드는 일반적으로 추가 연회비 없이 이용실적을 합산할 수 있어 높은 수준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